

# 규장각 사계

JUL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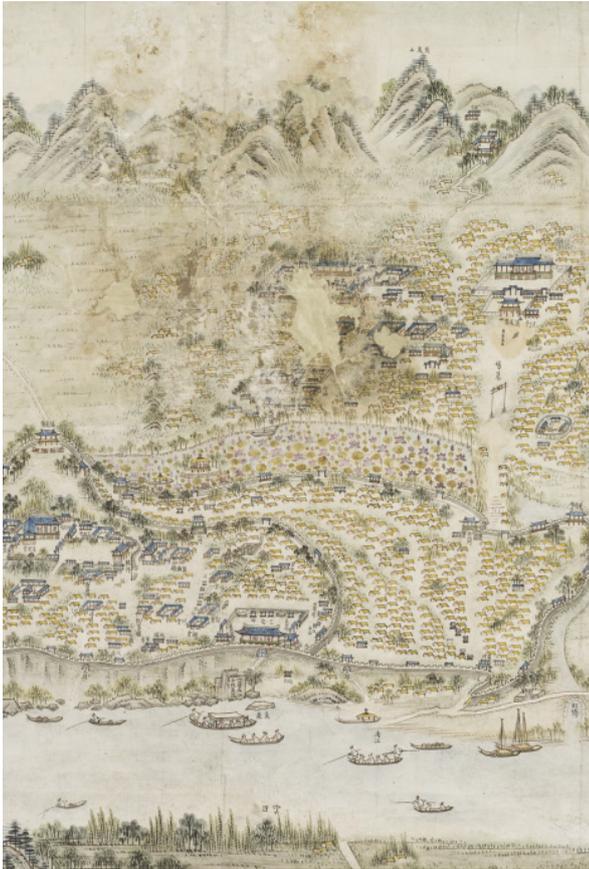
규장각 NEWSLETT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ol. 3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진주지도

### 표지설명

『진주지도(晉州地圖)』(古軸4709-51)의 일부입니다. 『진주지도』는 진주성 일대를 회화식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1823년(순조 23) 진주목사(晉州牧使) 홍백순(洪百順)이 축석루(矗石樓) 옆에 건립한 의기사(義妓祠)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1823년 이후 제작된 지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 상단 연못에 연꽃이 가득 핀 것으로 보아 한여름의 진주 풍광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하단의 남강가에는 임진왜란 때 의기 논개가 왜적장과 함께 강물에 몸을 던졌던 곳인 의암(義巖)이 선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진주성 내부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길, 그 주변을 둘러싼 산천의 풍광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명품도록』 136~137쪽, 238쪽 참조

## 규장각 칼럼

‘조선(朝鮮)’과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04

## 규장각 전시 자료의 이해

정조가 선본(選本) 서적을 편찬한 이유 07

## 규장각 소식

-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
- 학봉 이명준 소장자료 기탁 협약 11
-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지원과제 선정 12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리뉴얼 12
- 규장각 각종 행사 취소 안내 12

## 문화재보존관리 및 계승 사업

- 수리복원 · 보존처리 14
- 보존환경 제어 16
- 대체본 제작 17

## 학술행사

국제한국학센터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20

## 규장각 도서읽기

- 『당의통략(黨議通略)』 22
- 『한국문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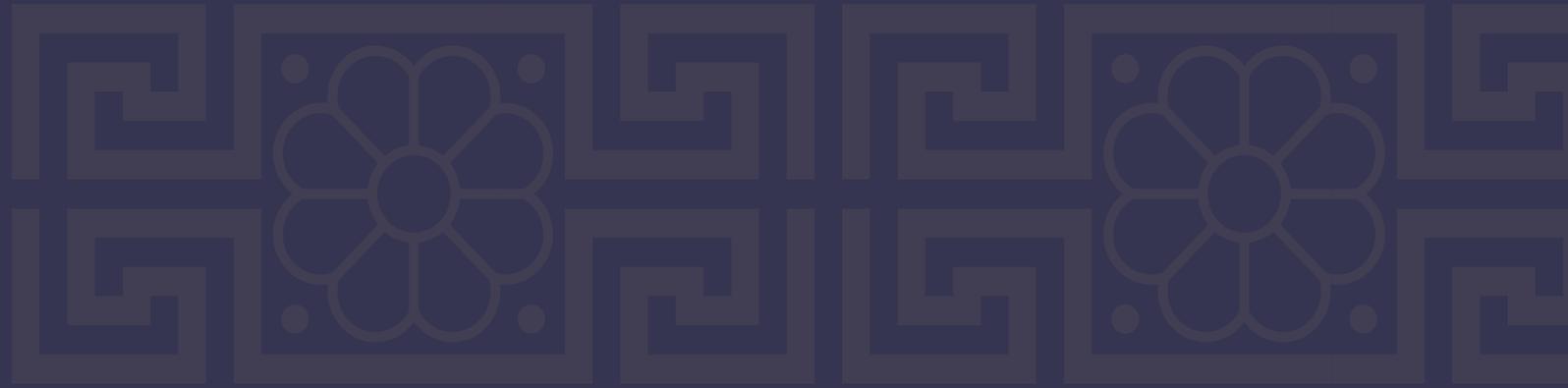
## 미리 보는 규장각

- 규장각 방춤 실시 24
- 제14회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 24
- 제13회 규장각 한국학 심포지엄 24

규장각 칼럼

'조선(朝鮮)'과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 규장각 칼럼

### ‘조선(朝鮮)’과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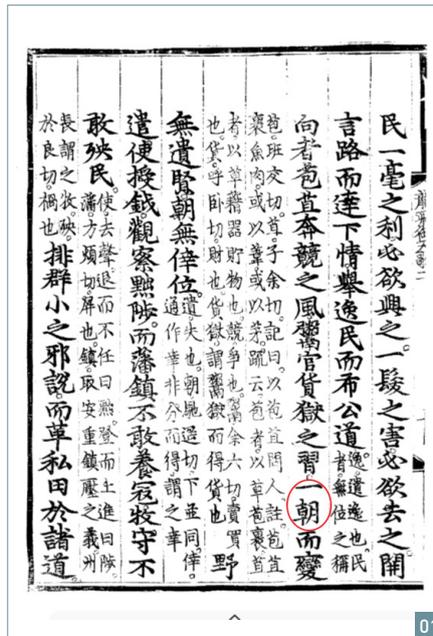


이 현 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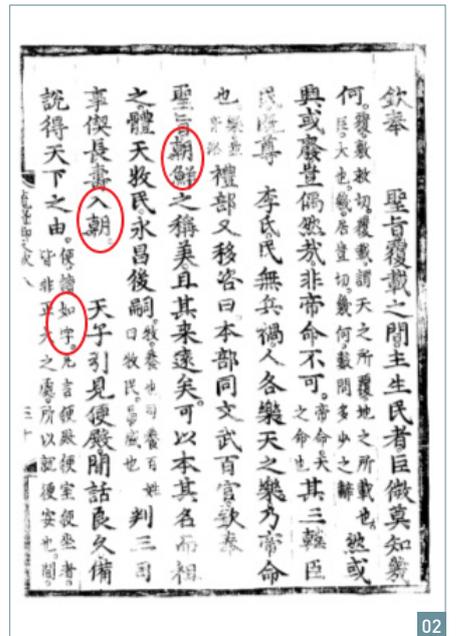
‘朝鮮’이라는 국명을 미국의 천문학자 로웰(Percival Lawrence Lowell, 1855~1916)이 1885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에서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으로 표현한 이래 현재까지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선시대에도 ‘조선(朝鮮)’의 ‘朝’는 “아침”의 의미를 가진다고 파악한 견해와 ‘조정’이나 “왕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파악한 두 견해가 있었습니다. 『여지승람』 류에서 “동쪽 끝 해가 뜨는 곳에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 이름하였다.(居東表日出之地, 故名朝鮮.)”라 하고 있다든가, 학봉 김성일의 『조선고이(朝鮮考異)』에서 “鮮은 밝음이니 동쪽에 위치하여 해가 선명하기 때문에 조선이라 하였다.(鮮, 明也. 地在東方日鮮明, 故爲朝鮮.)”라 한 것은 ‘朝’를 “아침”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 셈입니다.

조선 세종대에 간행된 『용비어천가』는 권발(圈發: 한자의 성조를 표시하는 동그라미)과 구두점[句讀點: 구점(句點: 마침표) 및 두점(讀點: 쉼표)]이 다 사용된 문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헌에는 ‘朝’가 “아침”의 뜻을 가지는 것은 본음이나 본뜻을 가지는 한자, 즉 여자(如字)(그림 2)의 ‘如字’ 참조로 처리하여 한자 귀퉁이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그림 1)의 ‘一朝’ 참조), ‘조정’이나 “왕조”의 뜻을 가지는 것은 如字와 다른 음이나 다른 뜻을 가지는 한자인 파음자(破音字)로 처리하여 평성 위치에 권발을 하였습니다(그림 2)의 ‘朝鮮’ 및 ‘入朝’ 참조). 말하자면, 『용비어천가』에서는 ‘朝鮮’의 ‘朝’를 “아침”의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왕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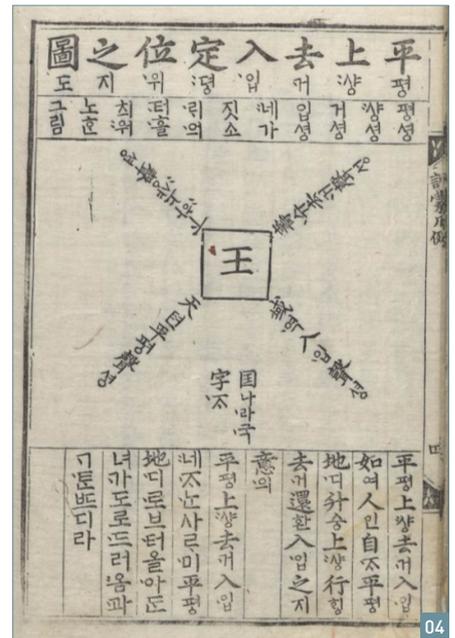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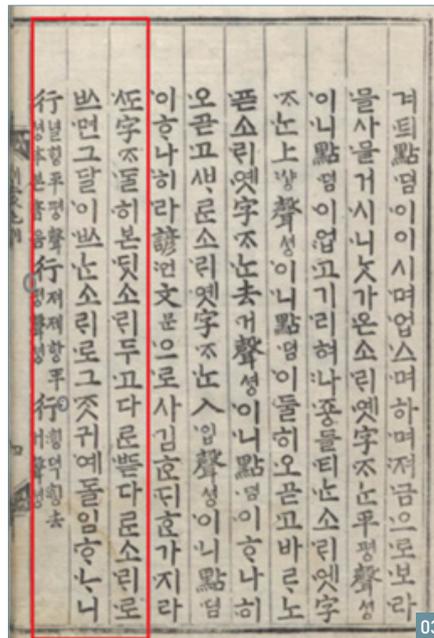
01 『용비어천가』 권2, 제10면, 일조(一朝)



02 『용비어천가』 권8, 제30면, 여자(如字)

여자(如字)와 파음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1527년에 최세진이 아동들을 위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일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림 3>은 한자들이 본래의 소리와 다른 뜻이나 다른 소리로 쓰일 경우 그 한자의 귀퉁이에 권발을 함을 말하고 있고[‘ㅍ 字(ㅈ) 들히 본뜻 소리두고 다른 ㅍ 다른 소리로 ㅍ면 그 달이 ㅍ는 소리로 그 ㅈ귀에 들임 후느니’](“한자들이 본래의 소리와 다른 뜻이나 다른 소리로 사용되면 그 달리 사용되는 소리로 인해 그 한

자의 귀퉁이에 동그라미를 하나니”의 의미를 가짐]), <그림 4>는 파음자들의 성조를 표시하는 권발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왼쪽 아래는 평성, 왼쪽 위는 상성, 오른쪽 위는 거성, 오른쪽 아래는 입성의 위치입니다. 평상거입(平上去入)의 네 가지 성조를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여 풀이한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平上去入 네 주는 사루미 平地로부터 올라 다녀 가 도로 드러옴과 古튼뜨디라’는 “平·上·去·入의 네 한자는 사람이 평지로부터 올라가서 다니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은 뜻이다.”의 의미를 가지지요.



03 『훈몽자회』, <범례> 제4면  
 04 『훈몽자회』, <범례>, <평상거입 정위지도>, 권발의 위치 설명

그런데 현대중국어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침”의 뜻을 가지는 ‘朝’는 [zhāo]라고 발음하고, “조정”이나 “왕조”의 뜻을 가지는 ‘朝’는 [cháo]라고 발음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朝鮮’은 [cháoxiān]이라고 발음하여 그 ‘朝’를 “조정”이나 “왕조”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은 ‘朝鮮’의 ‘朝’를 “아침”의 뜻으로 파악한 견해를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표현에 들어 있는 ‘calm’이 과연 ‘鮮’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서 인용된 역사기록들에서 ‘鮮’을 “밝음(明)”이나 “선명(鮮明)함”으로 파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한사전에서 ‘morning calm’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침뚝, 아침바라기, 아침무풍, 아침고요” 등등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지요? ‘evening calm’에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에 들어 있는 ‘calm’은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명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calmness’와 거의 같은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요. ‘morning calm’은 “아침 무렵에 해안 지방에서 해풍과 육풍이 바뀔 때 한동안 바람이 잠잠해지는 현상”을, ‘evening calm’은 “저녁 무렵에 해안 지방에서 해풍과 육풍이 바뀔 때 한동안 바람이 잠잠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우리는 ‘morning calm’의 ‘calm’은 ‘朝鮮’의 ‘鮮’과는 연결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朝鮮’은 ‘morning calm’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런 영어 표현을 조선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 규장각 전시 자료의 이해

---

정조가 선본(選本) 서적을 편찬한 이유

07



## 규장각 전시 자료의 이해

2019년 규장각 창립기념 특별 전시회 「인간정조 군주정조」에서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쓴 글입니다.

### 정조가 선본(選本) 서적을 편찬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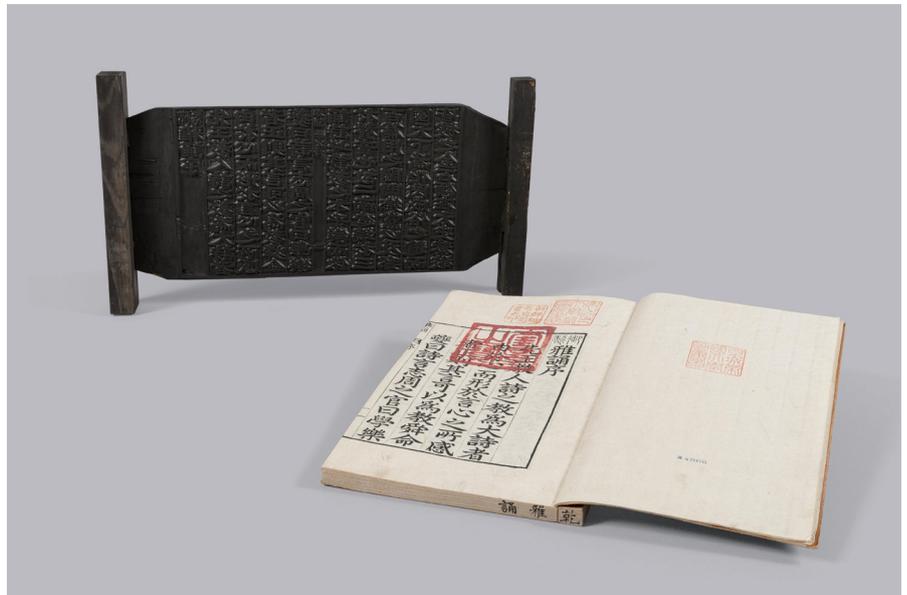
강 문 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 연구에 몰두했던 호학(好學)의 군주였습니다. 정조는 20대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저술을 편찬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실린 「군서표기(群書標記)」에는 정조가 일생동안 남긴 수많은 서적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의 시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

정조가 편찬한 서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서적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선본(選本)'의 편찬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학(儒學) 경전인 오경(五經) 중에서 핵심적인 글 100편을 뽑아 정리한 『오경백편(五經百篇)』, 중국 당(唐)·송(宋) 시대 문장가 8명의 글 중에서 100편을 뽑아 정리한 『팔자백선(八子百選)』, 주희(朱熹)의 서간문 중 100편을 선별하여 편집한 『주서백선(朱書百選)』,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중국 역사서 『사기(史記)』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사기영선(史記英選)』, 당(唐)의 명신(名臣) 육지(陸贄)의 상소문 중에서 긴요한 내용을 선별한 『육주약선(陸奏約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주희의 시문을 간추려 정리한 『이송(雅誦)』, 두보(杜甫)와 육유(陸游)의 시를 선별·편집한 『두륙천선(杜陸千選)』 등도 중요한 선본 자료입니다. 이처럼 정조는 경학, 문학, 주자학, 역사, 정치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선본 서적들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왜 이런 선본들을 편찬했을까요?



정조가 주희의 시와 문을  
간추려 뽑아 간행한 『아송(雅誦)』

정조가 편찬한 선본의 대상이 된 원본들, 즉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과 같은 경서나 『주자대전』·『사기』 등은 학자들이 꼭 읽어야 할 필수 서적들이었지만,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책들을 읽다가 중도에 지쳐서 그만두었고, 아예 처음부터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조는 이런 경향이 국가의 전반적인 학문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할 방편의 하나로 선본 편찬을 추진했습니다. 거질(巨帙)의 원본을 다 읽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핵심적인 내용만큼은 꼭 읽어서 학문의 기초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학자들이 선본 학습으로 기초를 닦은 후에는 거질의 원본을 공부하는 데까지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결국 정조의 선본 편찬에는 학자들에게 학문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조의 선본 편찬은 그가 '군사(君師, 임금이자 스승)'를 자임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군사'는 『서경』에서 유래한 말로, 국왕이 정치와 학문을 모두 주도했던 중국 삼대(三代)의 이상적 군주상을 말합니다. 정조는 자신이 공자의 학문적 정통을 계승하여 '군사'를 실현했다고 천명했으며, 그에 따라 교육을 장려하고 학문을 진흥시킬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정조는 선본 서적들을 직접 편찬하고 이를 간행하여 학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 규장각 소식

---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
학봉 이명준 소장자료 기탁 협약	11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지원과제 선정	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리뉴얼	12
규장각 각종 행사 취소 안내	12

# 규장각 소식

##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5월 25일 수원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희 원장님, 은기수 부원장님, 정요근 기획연구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MOU 체결에 따라 국토정보 플랫폼 (map.ngii.go.kr)에서 대동여지도와 동국여지도 등의 규장각 소장 고지도와 읍지를 활용한 역사 지리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학봉 이명준 소장자료 기탁 협약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5월 29일 학봉 이명준(鶴峯 李明俊) 선생의 소장자료를 기탁받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탁자료는 총 4,896종 9,283책/점(고도서 2,219종 6,153책, 고문서 1,458종 1,664점, 회화 5점, 근대도서 1,214종 1,461책)으로, 이는 지금까지 규장각이 받은 기증·기탁 건 중 최대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기탁 자료로는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密多經, 初雕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明內府刻本), 간찰첩(簡札帖) 등의 고도서와 교지(教旨), 형조입안(刑曹立案) 등의 고문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출간된 희귀본 근대도서 등이 있습니다. 또 임자식년사마방목(壬子式年司馬榜目) 등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지원과제 선정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는 2013년부터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을 기획·운영하여 한국학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가지 부문(자료연구, 저술, 학술모임, 학술대회, 신진학자 초청)에 대한 지원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중 4가지 부문(자료연구, 저술, 학술모임, 학술대회)의 공모가 진행되어, 지난 5월 8일에 개최된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에서 과제별 특성과 심사위원의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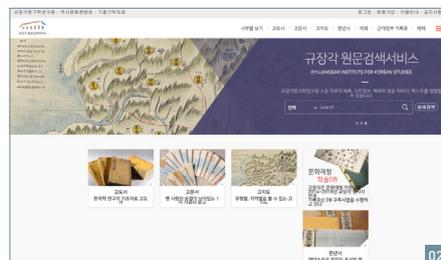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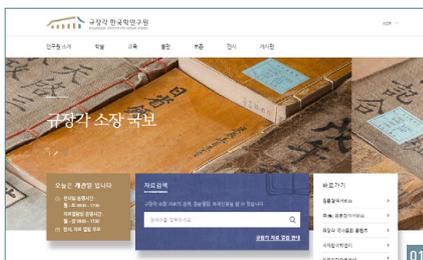
부문	사업 내용	선정 과제 수
연구용역	규장각 소장 자료를 이용한 기초 연구 과제	5
저술지원	한국학 제 분야의 개인 및 공동 연구로서, 연구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할 수 있는 과제	9
한국학 연구클러스터	집중 클러스터	6
	중소규모 집담회	12
한국학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3
	국내 학술대회	8

하반기에는 신진학자 초청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내년 초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리뉴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기존의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였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기관 홈페이지와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kyudb.snu.ac.kr/>)로 이원화하여 서비스 이용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자료의 대부분을 이관하였지만, 아직 이관하지 않은 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의 원문검색서비스는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0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 02 원문검색서비스 사이트
- 03 구 홈페이지 원문자료 검색



## 규장각 각종 행사 취소 안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2020년 5월 8일 개강하기로 했던 2020년 1학기 규장각금요시민강좌와 학술교육부 주간의 규장각 한문 강좌(초석, 고문서, 유학한문, 불교한문), 국제한국학센터의 제8회 규장각 한문워크숍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 문화재보존관리 및 계승 사업

---

수리복원 · 보존처리	14
보존환경 제어	16
대체본 제작	17

# 문화재보존관리 및 계승 사업

정보자료관리부에서는 규장각 소장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규장각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 사업 중 「수리복원·보존처리」, 「보존환경 제어」, 「대체본 제작」의 주요 사업은 이번 호에서 다루고, 「보존처리 연구」, 「정보화 및 기타 사업」은 다음 호에서 나누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리복원 · 보존처리

### 1) 상시보존처리 및 정밀상태 조사 사업

상시보존처리 및 정밀상태조사 사업에서는 규장각 소장 고문헌을 형태 및 기록 방법, 재료, 재질, 열화 상태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 자료에 손상 등급을 부여한 후, 해당 등급에 따라 보존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상 자료에 대해서는 응급 수리, 건식 클리닝 등의 보존 처리를 하며, 청구기호 재부착과 자료 보관용 중성 상자 제작 등의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2011년도부터 75,095건의 정밀상태 조사 및 건식 클리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6,000건의 상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태 조사 결과물은 데이터로 구축되고 있으며, 고문헌 보존 및 수리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1 건식 클리닝

02 곰팡이 제거

## 2)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

정밀 상태 조사에 따라 손상이 심한 것으로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일본 현황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리복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고문헌 282점, 회화 자료 14점, 총 206종 296점을 수리복원하였고, 올해는 『충청도은진현소재장용영둔전답타량성책(忠淸道恩津縣所在壯勇營屯田畓打量成冊)』을 비롯한 고문헌 25점, 고지도첩 6점 등 총 31점을 수리복원 할 예정입니다.



『충청도은진현소재장용영둔전답타량성책  
(忠淸道恩津縣所在壯勇營屯田畓打量成冊)』

## 3) 자체 수리복원

규장각 수리복원팀에서는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과 별개로 규장각 소장 자료의 전시, 대여, 열람 등 자료 관리상 필요한 상태 조사 및 응급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규장각 수리복원팀의 작업 대상은 『고화첩(古畵帖)』을 비롯한 9종 19점과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4점입니다.



『고화첩(古畵帖)』 앞·뒤 표지

## 보존환경 제어: 책갑 제작 사업

책갑 제작 사업은 고문헌을 미세먼지와 온·습도 변화, 조명으로부터 보호하고, 출납에 따른 훼손 방지 및 관리 편의를 도모하여 항구적 보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실록 책갑 제작을 시작으로 의궤, 호적대장 및 양안 등을 위한 책갑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7,058개를 제작해서 소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보관용 책갑입니다. 대상 자료 230여개의 규격을 조사하고, 국내산 오통나무를 사용한 전통 짜임 방식의 책갑을 제작하여, 훈증 소독 후 자료를 책갑에 넣어 서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서고 내부 책갑 보관 모습

## 대체본 제작

### 1) 귀중도서 원형 복원 복제 사업

소장자료 중 유일본 자료의 복본을 제작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하며, 원본과 동일한 재료, 형태로 원형 복제하여 원본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올해 제작 대상은 국보 제306-2호로 지정된 『삼국유사(三國遺事)』와 『W주부자시(朱夫子詩)』입니다. 『삼국유사』는 일연이 고대 역사 중 정사(正史) 기록에는 없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찬술한 역사서입니다. 규장각 소장본은 권말 발문 8행~13행이 결락되어 있는데, 판본 조사를 통해 결락 부분을 복원하여 재현할 예정입니다.

『주부자시』는 1800년 편찬된 책으로 정조가 124명의 신하들에게 주자의 시를 직접 친필로 쓰도록 명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정조 임금을 비롯하여 심환지(沈煥之), 정약용(丁若鏞) 등 이름이 알려진 신하들의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본 자료입니다. 곰팡이로 인한 훼손 부분이나 표지 및 내지의 오염 부분을 제거한 원형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01 『삼국유사(三國遺事)』

02 『주부자시(朱夫子詩)』

### 2) 책판 복원 및 인출 사업

책판 복원 및 인출 사업은 규장각이 소장한 책판 중 인출본이 없거나 2부 이내로 소장 중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책판이 결손되어 있다면 책판을 복원 제작한 후 전체 면을 인출하여 장책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신간동국통감(新刊東國通鑑)』, 『곤여전도(坤輿全圖)』, 등에 이어 올해에는 시문집인 『명고집(鳴皋集)』, 영조의 『추모록(追慕錄)』과 『영세추모록(永世追慕錄)』의 3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명고집』과 『추모록』은 인출본 없이 책판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장서각의 소장본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면의 결판 및 훼손된 책판을 복원하며, 3종 4책을 각 4부씩 인출, 총 16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01 『추모록(追慕錄)』

02 『영세추모록(永世追慕錄)』

### 3) 모사본 제작 사업

모사본 제작 사업은 전시 및 대여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도, 중요도,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변지도(寧邊地圖)』, 5점 및 『통영지도(統營地圖)』, 1점을 대상으로 하여, 인문학적 고찰과 과학적 조사 분석을 통해 가장 원형에 가까운 방법으로 모사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영변지도(寧邊地圖)』

# 학술 행사

# 학술 행사

코로나19로 인하여 규정각한국학 연구원의 학술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국제한국학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중계 학술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국제한국학센터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규정각 지하 강당에서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제1강 “부인(否認)의 경계: 남한영화의 식민 재현 Parameters of Disavowal: Coloni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n Cinema”의 저자인 안진수 교수님 (UC Berkeley)을 직접 모시고, 한국 영화에서 식민시기를 부정적으로 재현한 양상에 대하여 청해하였습니다. 사회자로는 국제한국학센터 소장인 성상환 교수님(SNU)께서, 토론자로는 이화진 박사님(인하대학교), 조준형 박사님(한국영상자료원)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제2강은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규정각 지하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팝의 도시: 한국의 대중문화와 장소의 판매 Pop City: Korean Popular Culture and the Selling of Place”의 저자인 오유정 교수님(Univ. of Texas at Austin)을 온라인으로 모시고, TV 드라마와 K-Pop 아이돌을 비롯한 한류의 확산이 어떻게 도시 공간의 상품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청해 들었습니다. 아시아연구소 센터장인 박배균 교수님(SNU)께서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토론자로는 CedarBough Saeji 박사님(Indiana Univ.)께서 온라인으로, 아시아연구소의 황진태 박사님(SNU)께서 현장에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2020년 저자특강 제1강 기념사진

5-7월

안진수 Jinsoo An -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arameters of Disavowal: Coloni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n Cinema

류정림 Jeongrim Ryu - Univ. of Texas at Austin  
Pop City: Korean Popular Culture and the Selling of Place

정민준 Minjun Jung - Univ. of Colorado Boulder  
Rites of the Insect: Insects and Domestic Coloniality in Colonial Korea

Robert Whitworth Chatters - Univ. of Leeds  
Fish, Fishing and Community in North Korea and Neighbourhood

8-10월

김희정 Heejeong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인”의 경계: 1927-1990년 남한영화의 식민 재현  
Parameters of Disavowal: Coloni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n Cinema, 1927-1990

David Cheng Cheng - Hong Kong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Hospital Ward: The Story of Korean Cities in the Korean War

미정

정윤환 Yoonhwan Jung - Univ. of Kansas  
The Bureau of Wages: Working in Misal on Cheju Island

John Y. Ahn - Univ. of Michigan  
Sustenance and Modernity: Migration and Health in Fourteenth-Century Korea

Yoon Ryang - Univ. of British Columbia  
Digital Medicines of Transnational Korean Youth Culture

Kapheeun Im - Univ. of California, LA  
Dynamic Korea and Rhythmic Form

Maek Seunggi Maek - St. Cloud State Univ.  
Constitutional Transition and the Heavens of Judges: The Courts of South Korea

규정각 2020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장소 | 규정각한국학연구원 지하 강당

2020년 5월 29일 (금) 10시  
Parameters of Disavowal: Coloni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n Cinema  
“부인(否認)의 경계: 남한영화의 식민재현”

안진수 교수  
Professor Jinsoo An

도론자  
이화진 (인하대학교)  
조준형 (한국영상자료원)

# 규장각 도서읽기

---

『당의통략(黨議通略)』

22

『한국문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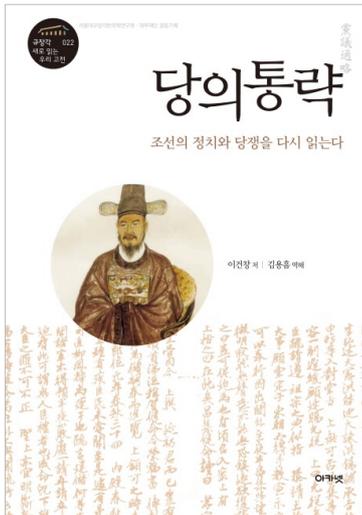
# 규장각 도서읽기

## 우리고전총서 『당의통략(黨議通略)』

우리고전총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대우재단의 공동 기획으로 출간된 책의 시리즈입니다. 고전의 원문, 번역 및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의통략』은 1575년(선조 8)~1755년(영조 31)의 180여 년을 대상으로 하여 ‘당의(黨議)’ 즉 각 봉당의 ‘당론(黨論)’을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1575년 동인·서인의 등장부터 1579년 정여립 옥사 이후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그리고 북인이 대북과 중북, 소북, 골북과 육북 등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물론 인조대 서인 가운데 청서·훈서, 노서·소서, 원당·낙당, 산당·한당 등의 명목이 등장하는 경위, 나아가서 숙종대 남인이 청남과 탁남으로 분열되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어 갈등하는 과정도 남김없이 기록하였으며, 영조대에 노·소론 탕평파가 완론과 준론으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양상도 담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 90호

- 『한국문화』는 문·사·철 분야는 물론 미술사학, 국악학, 건축학, 종교학, 서지학 등 한국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한국학 학술지입니다. 2007년 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이후 1년에 4회 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제9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수록 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준환, 지식영 『兒學編』(1908)의 漢語 韻母의 한글 표기와 漢語音
- 정동경, 한국어 대역사전 비교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간행된 한영사전의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 정동훈, 正統帝의 등극과 조선-명 관계의 큰 변화: 조선 세종대 양국관계 안정화의 한 배경
- 양혜원, 경국대전 度僧法의 역사적 의의
- 임종태, 조선 후기 북학론(北學論)의 수사적(修辭的) 전략과 중국 기술 도입론
- 김윤정, 조선 후기 竝有喪의 실제와 禮論: 謙齋 朴聖源의 「喪中雜識」를 중심으로
- 한보람, 개항 전후 申櫳의 시무개혁론 연구
- 김종학, 근대 '개화'의 수용과 정치변동(1876~1895)
- 최현우, 조선총독부 歐美 출장 제도의 특징과 관료의 파견 추이
- 엄태봉, 제4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을 중심으로
- 이성훈, 조선후기 생사당 건립과 생사당 봉안용 초상화의 제작: 평안지역을 중심으로

# 미리 보는 규장각

---

규장각 방충 실시	24
제14회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	24
제13회 규장각 한국학 심포지엄	24

## 미리 보는 규장각

### 규장각 방충 실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장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방충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규장각은 2020년 7월 27일(월)부터 8월 5일(수)까지 10일간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14회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의 한국학 여름학교는 온라인(ZOOM)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3주간 진행합니다.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210명 이상의 참가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약 30개의 한국학 관련 강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13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규장각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준비 중인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11월 6~7일 양일간) 참가자를 7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 발표 신청과 패널 발표 신청 모두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한국학센터 홈페이지(icks.snu.ac.kr)를 참고해 주세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